

사이버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 -배경변인별 차이를 중심으로-

이지혜*, 곽윤정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Perception on Career Barriers among Cyber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Ji Hye Lee*, Yoon Jung Gwak
Department of Psychology of Counseling, Sejo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서울소재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개인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진로발달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소재 한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 성인학습자로 온라인 설문에 응답한 총 937명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배경변인별 분석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20대가 30~50대보다, 비직장인이 직장인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진로장벽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하위영역 별로는 '미래불안', '흥미부족', '직업정보부족', '대인관계어려움'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지각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 분석에서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지각한 영역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이 유일했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인학습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진로발달 프로그램과 상담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differences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yber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a valuable basis for guiding adult learners in their career development. Subjects included 937 adult learners at cyber universities in Seoul, Korea, aged 20 and abov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level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females aged 20-29 who were unemployed and single were higher than that of males aged 30 to 59 who were employed and married. Female students were higher in 'anxiety of future', 'lack of interest', 'lack of job information', 'interpersonal difficulty'. The only component in which subjects aged 50-59 perceived higher than other age groups was 'conflict with important peop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y grad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erception of the career barriers of adult learners should be considered in customizing career development programs and career counselling.

Keywords : Cyber University, Career barri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reer Development, Adult-learner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지난해 발표된 고용동향자료에 의하면 30대 취업자는 2000년대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 청년실업률(15~29세)이 2016년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1]. OECD가 발표한 국가실업률에서도 한국은 매

년 상향조정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올해는 2001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2]. 이러한 현실은 취업 중심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로 이어져 전문대와 사이버대학의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국내 사이버대학은 2001년 9개 학교로 출발한 이후 현재 총 21개 학교로 늘어나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및 은퇴이후 성인학습자가 생산 가능한 인력으로 성장할

*Corresponding Author : Ji Hye Lee(Sejong Cyber Univ.)

Tel: +82-2-2204-8609 email: jihye79@sjcu.ac.kr

Received July 4, 2018

Accepted October 5, 2018

Revised (1st August 8, 2018, 2nd September 3, 2018)

Published October 31, 2018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대학 학습자들 중 상당수가 온라인교육을 취업준비를 위한 중간단계로 활용하므로 학습자의 취업은 당사자 뿐 아니라 노동시장과 대학의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학습자가 진로를 준비하는 구직과정에서 겪는 내·외 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효율적인 구직활동 지원 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연구는 이러한 요구와 맞물려 연구의 폭이 확장되고 있는데, 특히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는 최근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취업불안, 취업준비행동, 진로효능감, 진로태도성숙 및 전공만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3,4].

진로장벽이란 개인의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개인적이고 환경적인 사건이나 조건이다. 흔히 사용되는 정의는 ‘직업이나 진로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목표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 요인’들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것을 의미한다[5]. 따라서 개인이 겪은 과거의 어려움과 장애뿐만 아니라 미래의 진로계획이나 목표 성취를 위해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장애 또한 진로장벽으로 설명된다[6]. 이러한 진로장벽은 진로목표를 세우고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불안, 걱정, 자신감 부족 등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게 된다[4].

진로장벽의 구성개념에 대해서는 학자간의 견해차가 존재하지만, 직업에 대한 정보부족, 자신에 대한 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외적장애 요인 등이 공통적으로 논의되어 왔다[3,6]. 이중 외적장애 요인은 부모나 중요한 타자와의 갈등, 사회적인 조건과 개인 간 불일치로 인한 것들로 진로장벽 연구에 있어 개인특성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변화 혹은 이들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진로장벽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성차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여러 변인들을 폭넓게 다루지는 못했다. 진로장벽의 지각에 대한 국내연구들에서는 성차가 없다는 결과들[6,7]과 여성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5,8,9], 반대로 남성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10,11]도 나타나 일치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진로장벽의 성차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보면 대체로 남학생은 나이나 경제적 문제와 같은 외적 요인에 대한 지각이 높았고, 여학생은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을 크게 지각하고 있었다[4,5,9,10,12].

학년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연구에서는 진로장벽 하위영역에 따른 학년 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4,6] 학년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11]. 반대로 학년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각한 결과[8,13]도 있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그밖에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 소득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6,14], 전공계열이 진로장벽 지각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5,15,16]결과 등이 확인되었으나 일치되는 결론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처럼 학습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여성의 진로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최근 대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장벽 차이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장벽의 하위 영역 중 자기명확성부족과 대인관계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었다[4].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의 학습자가 느끼는 진로장벽이 더 낮았다[16]. 소득이나 성별과 같은 학습자의 배경변인에 따라 학습자의 진로장벽 지각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론은 대학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습자의 인구특성학적 변인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학습자가 실제로 진로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적게 한다는 연구 결과는[13] 진로교육 전에 적어도 학습자가 어떠한 문제를 진로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이때에도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변인은 그들이 진로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주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사이버대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사이버대학의 성장률에 비해 무척이나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진로장벽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로장벽 연구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진로장벽 지각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17], 전문대생과 4년제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연구[16,18]결과로 미루어볼 때, 사이버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에서 일반 대학생들과는 다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예상해본다. 또한 성별, 학년, 전공, 가정 소득 등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 차이에서 연구마다 다른 결과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이버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가 지각하는 진로장벽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습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대 학생들의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들을 확인하여 진로목표 설정과 진로선택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충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진로장벽에는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가?

둘째,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진로장벽 하위영역에는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서울 소재 한 사이버대에서 2017학년 1, 2학기에 개설된 심리학 관련 전공 및 교양 수업에 참가한 전 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8개 학부에 소속된 953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6명을 제외한 937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연구대상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lassification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378	40.3%
	Female	559	59.7%
Grade	Freshman	215	22.9%
	Sophomore	116	12.4%
	Junior	260	27.7%
	Senior	320	34.2%
	Part-time	26	2.8%
Age	10s	6	0.6%
	20s	365	39.0%
	30s	285	30.4%
	40s	171	18.2%
	50s	97	10.4%
	60s	13	1.4%

Occupation	Yes	191	20.4%
	No	746	79.6%
Marriage	Yes	371	39.6%
	No	540	57.6%
	Non-response	26	2.8%
Child	Yes	316	33.7%
	No	605	64.6%
	Non-response	16	1.7%
Over all		937	100.0

2.2 측정도구

사이버대학생의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김은영(2001)이 개발한 진로탐색장애검사를 활용하였다[6]. 검사는 미래불안, 흥미부족, 신체적 열등감, 나이문제, 직업정보부족, 타인과의 갈등, 경제적어려움, 자기명확성부족, 대인관계 어려움과 같이 9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식 5점 척도의 45문항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하며 본 연구에서 진로장벽 검사의 신뢰도는 .95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Sub-Components and Reliability of Career Barriers

Sub-components	Cronbach's α
Anxiety of future	.73
Lack of interest	.76
Inferiority of body	.80
Age issues	.85
Lack of job information	.78
Conflict with important people	.82
Difficulty of finance	.77
Lack of self-clarity	.83
Interpersonal difficulty	.80

2.3 자료 분석 절차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과 전공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과 전공만족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과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여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였다. 변량분석을 통해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경우 집단 간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진로장벽의 하위영역별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사이버대 학습자가 가장 높게 지각한 진로장벽은 신체적열등감(11.06)이었고, 흥미부족(9.81), 대인관계어려움(9.71),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9.64), 미래불안(9.14), 직업정보부족(9.12), 자기명확성부족(8.71), 나이문제(7.9), 끝으로 경제적어려움(7.64) 순이었다. 진로장벽의 총합은 최저 36점에서 최대 159점으로 평균 82.7점이었다.

3.2 차이검증

3.2.1 진로장벽

피험자가 지각한 진로장벽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기술통계, T 검정과 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Table 3). 먼저 인구특성학적 변인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진로장벽을 확인하였다. 집단 간 차이검증을 위해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 직업유무, 결혼유무, 자녀유무 영역에서 등분산이 가정됨을 확인하였다($p>.05$).

집단 별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남성(80.06)보다 여성(84.47), 직장인(80.84) 보다 비직장인(90.25)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이면서 직업이 없는 경우의 진로장벽이 가장 높았다(91.55). 그리고 기혼 학습자보다 미혼 학습자가 진로장벽을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였으며 자녀가 있는 학습자보다 없는 학습자가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였다. 기혼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유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Levene의 등분산 검증을 실시한 결과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아 Welch 통계량을 검증한 결과 유의확률 .036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확인되어 Games-Howell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대 학습자가 50대 학습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진로장벽 인식을 보였다($p<.05$). 학년에 따른 진로장벽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3.2.2 진로장벽 하위영역별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진로장벽의 9개 하위영역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이버대 학습자의 진로장벽 하위영역에는 성별, 직업유무, 결혼여부, 그리고 자녀유무 변인에서 모두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Table 4). 집단 간 차이검증을 위해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나이문제와 경제적어려움 영역, 직업유무에서는 신체적열등감의 F값이 $p<.05$ 를 충족하지 못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으며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외에 결혼유무, 자녀유무에 따른 하위영역에서는 등분산이 가정됨을 확인하였다($p>.05$).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Levene의 등분

Table 3. Difference Analysis of Career Barrier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M	SD	t-test					
				Levene's test	df	t	P		
Gender	Male	80.06	24.18	1.021	901	-2.75	.00**		
	Female	84.47	23.18						
Occupation	Yes	80.84	23.68	.508	901	4.82	.00***		
	No	90.25	22.12						
Marriage	Yes	79.47	22.99	1.105	878	3.27	.00***		
	No	84.77	23.86						
Child	Yes	78.83	21.87	3.984	886	3.39	.00***		
	No	84.50	24.29						
Classification		M	SD	ANOVA					
				df	MS	Levene's test	F	P	
Age	20s	85.08*	23.70	between-group	3	1378.44	.007	2.47	.06
	30s	82.03	25.84						
	40s	80.93	21.43	within-group	899	557.77			
	50s	78.83*	19.72	total	902				

* $p<.05$. ** $p<.01$. *** $p<.001$.

Table 4. Difference Analysis of Sub-Components of Career Barriers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Anxiety of future				Lack of interest				Inferiority of body			
		M	SD	t	P	M	SD	t	P	M	SD	t	P
Gender	Male	8.74	3.50	-2.83	.01**	9.18	3.25	-4.87	.00***	11.20	3.47	.966	.33
	Female	9.42	3.60			10.23	3.10			10.96	3.71		
Occupation	Yes	8.84	3.44	5.30	.00***	9.55	3.16	4.88	.00***	10.94	3.62	2.00	.04
	No	10.40	3.83			10.84	3.10			11.54	3.54		
Marriage	Yes	8.73	3.41	2.83	.01**	9.51	3.14	2.37	.02*	10.68	3.60	2.36	.01**
	No	9.42	3.66			10.01	3.19			11.27	3.61		
Child	Yes	8.57	3.26	3.51	.00***	9.35	3.04	2.98	.00**	10.77	3.63	1.638	.10
	No	9.42	3.70			10.02	3.23			11.19	3.61		
Classification		M	SD	F	P	M	SD	F	P	M	SD	F	P
Age	20s	9.69 ^b	3.58	5.26	.00***	10.39 ^b	3.23	7.19	.00***	11.05	3.56	1.62	.18
	30s	8.82 ^a	3.88			9.32 ^a	3.26			11.33	3.81		
	40s	8.94 ^a	3.13			9.43 ^a	3.00			10.99	3.33		
	50s	8.40 ^a	3.07			9.67 ^a	2.82			10.40	3.64		
Classification		Age issues				Lack of job information				Conflict with important people			
		M	SD	t	P	M	SD	t	P	M	SD	t	P
Gender	Male	7.87	3.24	-1.78	.85	8.71	3.50	-3.08	.01**	9.34	3.92	-1.70	.08
	Female	7.91	3.32			9.40	3.20			9.84	4.42		
Occupation	Yes	7.75	3.22	2.73	.01**	8.90	3.37	4.10	.00***	9.47	4.19	2.39	.01**
	No	8.50	3.49			10.03	3.05			10.32	4.48		
Marriage	Yes	7.67	3.12	1.77	.07	8.59	3.16	3.81	.00***	9.70	4.10	-4.3	.66
	No	8.07	3.39			9.45	3.40			9.58	4.37		
Child	Yes	7.67	3.09	1.47	.141	8.44	3.00	4.25	.00***	9.92	4.09	-1.41	.158
	No	8.02	3.38			9.44	3.44			9.49	4.34		
Classification		M	SD	F	P	M	SD	F	P	M	SD	F	P
Age	20s	8.19	3.45	-	-	9.58 ^b	3.32	4.61	.01**	8.94 ^b	4.00	6.01	.00***
	30s	7.75	3.33			9.03 ^a	3.66			9.90 ^b	4.77		
	40s	7.86	3.04			8.67 ^a	3.00			10.19 ^b	4.00		
	50s	7.29	2.86			8.46 ^a	2.74			10.54 ^a	3.66		
Classification		Difficulty of finance				Lack of self-clarity				Interpersonal difficulty			
		M	SD	t	P	M	SD	t	P	M	SD	t	P
Gender	Male	7.40	3.42	-1.75	.08	8.55	3.19	-1.20	.22	9.13	3.64	-3.76	.00***
	Female	7.81	3.55			8.81	3.25			10.10	3.88		
Occupation	Yes	7.45	3.41	3.36	.00***	8.65	3.25	1.00	.31	9.32	3.76	6.26	.00***
	No	8.43	3.76			8.92	3.15			11.28	3.36		
Marriage	Yes	7.45	3.34	1.19	.23	8.25	3.11	3.45	.01**	8.90	3.45	5.15	.00***
	No	7.74	3.62			9.02	3.28			10.24	3.96		
Child	Yes	7.31	3.04	1.85	.064	7.97	2.89	4.74	.00***	8.84	3.40	4.81	.00***
	No	7.77	3.70			9.05	3.33			10.13	3.95		
Classification		M	SD	F	P	M	SD	F	P	M	SD	F	P
Age	20s	7.84	3.54	-	-	9.19 ^c	3.30	7.94	.00***	10.28 ^b	3.82	5.84	.01**
	30s	7.47	3.82			8.76 ^b	3.34			9.65 ^b	4.07		
	40s	7.56	3.19			8.19 ^a	2.90			9.09 ^b	3.55		
	50s	7.58	2.89			7.63 ^a	2.84			8.88 ^a	3.11		

*p<.05. **p<.01. ***p<.001.

산 검증을 실시한 결과(df1=3, df2=898) 흥미부족, 신체 적열등감, 자기명확성부족 영역에서는 등분산이 가정되어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p<.0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하위영역에 대해 Welch 통계량의 유의확률을 검증한 결과 나이문제와 경제적어려움 영역을 제외한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있다고 검증되어(p<.05) Games-Howell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대

가 미래불안과 흥미부족, 정보부족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으며 20대 학습자의 평균값은 .001 유의수준에서 30대, 40대, 50대에 비해 높았다(a<b).

미래불안과 흥미부족 그리고 정보부족 영역에서는 남성보다 여성, 직장인보다 비직장인, 기혼자보다 미혼자, 자녀가 없는 학습자가 진로장벽을 유의미하게 더 높게 지각하였다.

신체적열등감 영역에서는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나이문제 또한 비직장인이 직장인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이었다.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영역에서도 비직장인이 직장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은 50대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50대 학습자가 .001 유의수준에서 20, 30, 40대 학습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a < b$).

이와 반대로 대인관계어려움 영역에서는 50대의 평균값이 가장 낮고 20대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는데 Games-Howell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대 학습자가 .01 유의수준에서 대인관계어려움을 30, 40, 50대 학습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a < b$). 대인관계어려움 영역에서도 남성보다 여성, 직장인보다 비직장인, 기혼자보다 미혼자, 자녀가 없는 학습자가 진로장벽을 유의미하게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자기명확성부족 영역에서는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자녀가 있는 학습자보다 없는 학습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20대가 자기명확성부족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으며 50대가 가장 낮게 지각하였다.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대 학습자의 평균값은 .001 유의수준에서 30대, 40대, 50대에 비해 높았으며 이중 50대의 평균값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a < b < c$).

끝으로 경제적어려움 영역에서는 직업유무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비직장인이 직장인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진로장벽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서울소재 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사이버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발달 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 하위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

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미래불안, 흥미부족, 직업정보부족, 대인관계어려움 영역에서 여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은 지각 수준을 보였다. 기존연구에서 여학생은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을 크게 지각하고 있었는데[9,10,12]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또한 이공계 학생들의 진로장벽 연구[17]에서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신체적열등감에서 여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더 높았고 고등학생의 진로장벽 지각에 대한 연구[19]에서는 여학생이 신체적열등감을 다른 영역 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반면, 비서학 전공 대학생들은 신체적열등감과 나이문제를 가장 낮은 진로장벽으로 여기고 있었다[20].

이러한 차이는 전공 계열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배경변인 중 전공계열은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문계와 전문계 고등학생들이 지각한 진로장벽 비교 연구에서 전문계열을 선택한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더 높은 장애 요인으로 지각하고 있었다[19]. 사회복지전공생들의 진로장벽 연구에서는 외적장애보다는 자기명확성 부족과 우유부단한 성격과 같은 내적장애를 더욱 인식하고 있었다[3]. 추후 연구에서는 전공계열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나이문제나 경제적문제와 같은 외적장애 요인에 대한 지각 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남학생은 대체로 나이나 경제적 문제와 같은 외적 요인에 대한 지각이 높았다는 결과와 달랐다[4,5]. 사이버대 학생들은 일반 대학생에 비해 연령이 높으며 본 연구 참여자는 30대에서 50대 사이가 전체 참여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나이문제를 심각한 진로장벽으로 지각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또한 사이버대 학생들의 연령이 일반 대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연구 피험자가 20%의 직장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를 높은 진로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반적인 남자 대학생들과 달리 이를 큰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 영역에서는 직업유무 변인에서만 비직장인이 직장인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둘째, 직업유무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비직장인은 신체적열등감과 자기명확성을 제외한 모

든 하위영역에서 직장인보다 높은 진로장벽 지각을 나타냈다. 이와 유사한 연구에서 소득수준은 진로장벽 지각에 주요한 변인이었는데, 가정소득 6000만 원 이상의 전공자가 진로장벽을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으며 4000만 원 미만의 전공자가 진로장벽을 가장 높게 지각했다 [16]. 또 다른 연구에서도 가정 소득은 진로장벽의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변인이었다[6,14].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직장인과 비직장인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한 외부 지원이 완전히 다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비직장인이 직장인보다 심각하게 지각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 직업에 대한 정보부족, 대인관계 어려움 등의 문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외적인 지원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진로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의 배경변인 중 직업유무는 반드시 사전에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다. 특히 신체적 열등감은 직업이 없는 학습자의 지각 수준이 가장 높았는데, 문제는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진로목표활동이 적게 이루어지며 [13,25] 결국 취업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2,23].

셋째, 미혼인 학습자가 미래불안, 흥미부족, 신체적열등감, 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부족, 대인관계 어려움에서 기혼인 학습자보다 더 높은 진로장벽 지각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있는 학습자가 나타내는 진로장벽 지각 유형과 같았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혼 및 자녀유무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의 차이를 비교해볼만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기는 어렵지만 사이버대학생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여러 배경변인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나이에 따른 진로장벽 지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미래불안과 흥미부족, 직업에 대한 정보부족, 대인관계의 어려움 영역에서 30, 40, 50대와 달리 20대가 유의미하게 높은 지각수준을 보였다. 반대로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영역에서는 50대가 지각하는 수준이 20, 30, 40대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50대 이상의 사이버대 학생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요소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아마도 취업에 대한 욕구나 실행력이 20대나 30대에 비해 낮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진로장벽은 취업준비행동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22]. 취업준비행동을 많이 할수록 진로장벽에 부딪히는 경험이 많

아지기 때문이다.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취업준비행동을 덜하고 진로에 대한 관심도 낮아진다[13]. 때문에 진로를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진로장벽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20대가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여러 하위영역에서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사이버대학에 진학한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직이나 구직에 대한 욕구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대학생의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24] 자격증 취득과 같이 취업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목표지향동기에서 20대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50대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처럼 다양한 연령대를 포괄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령 변인 등을 고려한 추후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끝으로 여러 선행연구들과 달리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지각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했다 [24]. 사이버 대학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학년이라도 나이 차이가 크며 다양한 배경변인을 가진 학습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학년 간 차이가 확인된 다른 연구[4,5,6,8,11,13]들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의 심리적·환경적 진로장벽은 사회적 지지와 희망을 통해 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25,26]. 따라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수자 및 상담자가 여러 형태의 지지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겪고 있는 내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추후 진로발달 프로그램이나 진로상담을 계획할 때에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은 기본으로 하되 학습자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성별, 연령과 같은 배경변인이 진로장벽 지각에 확인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배경변인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안내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예로 미래불안과 흥미부족,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남학생보다 심각하게 지각하는 여학생에게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취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심리적·환경적 지원 필요하며 진로상담 시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접근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진로장벽 영역 중 중요한 타인과의

의 갈등 요소만을 높게 지각한 50대에게는 취업정보나 미래설계보다는 가까운 타인과의 갈등해결을 위한 도움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자취중이나 학위취득을 통해 구직이나 재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이버대학 학습자에게는 그들이 지각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극복하기 위한 맞춤형 진로발달 프로그램과 상담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뿐만 아니라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본 연구에서 20대 학습자는 전반적으로 높은 진로장벽 지각을 보였는데 성인학습자의 주관적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장애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한 사이버대학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진로장벽을 매개하는 관련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사이버대학 및 전공 영역 별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사이버대학생들의 진로발달과 취업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Statistic Research paper, "Occupational Information", [http://www.keis.or.kr/user/extra/main/2102/publication/publicationList/jsp/LayOutPage.do?categoryIdx=131&pubIdx=4541&spage=1&onlyList=N\(2018.6.27\)](http://www.keis.or.kr/user/extra/main/2102/publication/publicationList/jsp/LayOutPage.do?categoryIdx=131&pubIdx=4541&spage=1&onlyList=N(2018.6.27))
- [2] YonhapNews Agency, Article, "S. Korea's jobless rate rises steadily amid dip in OECD average",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16/020000000AKR20180616037500002.HTML?input=1195m\(2018.6.27.\)](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16/020000000AKR20180616037500002.HTML?input=1195m(2018.6.27.))
- [3] S. Y. Choi, "A Study on the Antecedents of Social Work Students' Career Decision Efficacy: Focusing on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and Satisfaction from Major",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10, pp.345-353, 2016.
DOI: <https://dx.doi.org/10.14257/AJMAHS.2016.10.39>
- [4] S. H. Park, J. H. Ahn,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Career Barrier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Competencies based on Gender, Grade, and Fields of Major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 age of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8, pp.69-80, 2016.
DOI: <https://dx.doi.org/10.14400/JDC.2016.14.8.69>
- [5] E. R. Sohn, K. H. Kim, "The factors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4, No.1, pp.121-139, 2002.
- [6] E. Y. Kim,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 inventory", Ph.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1.
- [7] S. J. Kim,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hop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2005.
- [8] A. L. Jung, S. H. You, N. A. Ru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ollege Adjustment of Juni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2, No.18, pp.535-558, 2011.
- [9] K. H. Lim,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ncourag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2, No.3, pp.101-119, 2009.
- [10] H. J. Cho, "The Relationship among Cognitive Styl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6, No.19, pp.93-110, 2006
- [11] S. H. Lee,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Resilience of College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19, pp.23-44, 2017.
DOI: <https://dx.doi.org/10.22251/jlcci.2017.17.19.23>
- [12] S. H. Choi,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Ph.D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2007.
- [13] K. H. Back, K. H. You,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and major satisfaction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group of security major college students", *Korea Security Secure Review*, Vol.29, pp.117-137, 2011.
- [14] J. K. Lee, "Effect of the career barriers and occupational Values to the career self-efficacy of the students of agriculture specialized high school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2, No.1, pp.127-143, 2009.
- [15] J. E. Rue, "A Study on the Perception, Regarding Career Barriers and the Career Compromise Typ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Science &Engineering Major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9, No.2, pp.145-166, 2016.
- [16] D. K. Lee, T. K. Na, "Perception on Career Barrier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Foodservice: Focusing on Gender, Grade and Income Level by School Type", *Korea Tourism Research*, Vol.27, No.5, pp.119-135, 2013.
- [17] K. J. Yon, J. W. Yang, J. S. Lee, A. K. Jang, J. K. Kim, "Differences in perceived career barriers by gender and affiliation(undergraduate, graduate): A study focusing on a science and engineering university",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18, No.2, pp.295-316, 2013.

DOI: <https://dx.doi.org/10.18205/kpa.2013.18.2.003>

- [18] J. S. Lim, I. O. Chang, "A Structural Analysis among Perceived Career Barriers, Career Certain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emale Juni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12, No.1, pp.49-67, 2015.
- [19] J. J. Kim, H. Y. Kwon,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Barrier, Career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of the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Vol.18, No.1, pp.67-82, 2015.
- [20] Y. A. Cho, "An Impact of Career Barrier on Career Decision Level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cience",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Vol.16, No.1, pp.107-127, 2007.
- [21] S. M. Kang, "The Effects of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Career Calling o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of Art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Education, 2016.
- [22] H. H. Kang, "Effect of Career barrier on Polytechnics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Resilienc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 No.28, pp.59-78, 2015.
- [23] S. H. You, "The Moderating Effects of Job Search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cience",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Vol.20, No.3, pp.97-116, 2011.
- [24] Y. J. Gwak, J. H. Lee, "The effect of educational participatory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among Cybe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5, pp.285-295, 2018.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8.19.5.285>
- [25] G. W. Lee,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Engineering Majors Undergraduates: Hope and Career Identity as Mediating Variable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Education, 2018.
- [26] H. K.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Hop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7.
- [27] Y. H. Chang, J. S. Lee, E. S. Sin, "The Relations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Happines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14, No.3, pp.163-184, 2016.

이 지 혜(Ji Hye Lee)

[정회원]



- 2005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2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8년 6월 ~ 현재 : 세종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관심분야>

교육학, 교육심리, 상담심리

곽 윤 정(Yoon Jung Gwak)

[정회원]



- 1997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0년 6월 ~ 현재 :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교육학, 사이버교육, 상담심리